

밥 먹 는



사 이



Cover Story 정성으로 차린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기호 안에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밥 먹는

사이

본그룹 사회공헌
2021 애뉴얼 리포트



CONTENTS



06 **어르신 본죽 왔어요**
 한 눈에 보는 나눔 08
 함께 안부를 묻는 사이 10
 속편한 나눔 16



18 **본도시락, 생일은 특별하게**
 한 눈에 보는 나눔 20
 함께 생일을 축하한 사이 22
 특별한 나눔 28



30 **우리동네 본설렁탕 나눔 챌린지**
 한 눈에 보는 나눔 32
 함께 나눔을 더한 사이 34

38 **행복 남남~ 베이비본죽**
 함께 행복을 응원한 사이 40

42 **나눔은 언택트, 마음은 온택트**
 언택트 응원 배달 44
 따뜻한 용기 배달 46



48 **세상의 온기와 희망, 본사랑**
 해외 사랑 나눔 50
 국내 사랑 나눔 52



54 **우리는 본족인**
 한 눈에 보는 봉사활동 56
 본족인 인터뷰 58
 지구를 건강하게 60
 한마음 행복 나누미 캠페인 62
 본사모 릴레이 나눔 63

64 **21년 사회공헌 하이라이트**

밥을 먹는 사이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밥 먹는 사이
 입니다

어르신, 본죽 왔어요!

저소득 독거 어르신 대다수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담감과 거동불편 등으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거리 두기로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울 및 무기력감 증가, 고독사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들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에게 매주 따뜻한 본죽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21년 어르신 본죽 나눔

7,033 그릇

본죽 나눔 누적(09년~21년)

79,204 그릇



속을 편안하게 채워주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듬는 본죽을 함께 선물합니다

2009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본죽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의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어르신 본죽 나눔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5개 본죽, 본죽&비빔밥 가맹점과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정성으로 본죽을 준비하면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봉사자가 본죽을 픽업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나눔을 시작합니다.

따뜻한 죽을 전달하며 잘 지내시는지, 일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안부를 여쭙며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어르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영양가 있는 죽으로 든든하게 식사합니다.

사회복지사/봉사자

본죽을 가맹점에서 픽업하여, 어르신 댁으로 가져다드립니다. 본죽 전달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며 온정을 나눕니다.



21년 나눔에 동참한 가맹점

15

 개

21년 본죽을 받으신 어르신

269

 명

본사

매년 공모를 통해 협력할 복지기관을 선정하고, 지역사회 내 가맹점과 복지기관을 연계합니다.



복지기관

지역사회 본죽 나눔이 필요한 어르신을 조사하고 선정합니다.



어르신 인기죽 Best 3



단호박죽



쇠고기야채죽



전복죽

본죽, 본죽&비빔밥 가맹점

일주일마다 한번 약속된 시간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죽을 정성껏 끓여 준비해드립니다.



따뜻함을 나눌 이웃이 되어 드립니다

‘죽’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챙겨주는 마음의 음식입니다. 건강을 복돋아 주는 것도 크지만 오로지 나를 위해 죽을 챙겨준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안이 됩니다. 평소 기력이 없으신 어르신이 매주 본죽 나눔을 통해 삶의 활력이 생기셨어요. 변화된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 죽 한 그릇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개금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with 본죽&비빔밥 부산개금점

어르신들에게 본죽은 끼니 걱정도 덜고 건강도 좋아지는 좋은 선물입니다. ‘어르신 본죽 왔어요’를 통해 어르신과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뵈게 되고 안부도 묻게 되었어요. 어르신들께서는 본죽을 계기로 식사의 즐거움도 찾으셨고, 기운을 회복하셔서 산책을 하시는 등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with 본죽 번동점

재가장애인 어르신들에게 매주 본죽을 나누며 기초건강체크를 함께하고 있어요. 건강 문제가 의심되면 병원이나 보건소 진료를 의뢰해 적절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 홀로 계신 재가장애인분들과 본죽을 나누며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야기 나누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with 본죽 공주중동점

대학생 봉사자들이 본죽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하여 말벗도 되어드리고, 스마트폰 교육도 해드립니다. 홀몸 어르신들께 ‘고독사 예방 앱’을 설치해 드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르신들에게 본죽 나눔은 ‘따뜻함을 나눌 이웃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주 같은 봉사자들이 매주 본죽을 들고 찾아오니 평범한 삶에 특별한 일과가 생기셨답니다.

평화사회복지관 with 본죽 전주평화현대점

<어르신 본죽 왔어요> 21년 나눔 참여 가맹점

- 본죽 번동점
- 본죽 공주중동점
- 본죽 광양마동점
- 본죽 대구팔달시장점
- 본죽 대전판암점
- 본죽 울산병원점
- 본죽 전주평화현대점
- 본죽 제주일도점
- 본죽 흥천점
- 본죽&비빔밥 거제고현점
- 본죽&비빔밥 대구동성로중앙점
- 본죽&비빔밥 대구북구청점
- 본죽&비빔밥 부산개금점
- 본죽&비빔밥 인제점
- 본죽&비빔밥 제주삼화점



사진제공 -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신이 매주 기다리는 최고의 손님 본죽

**매주 수요일 아침 본죽&비빔밥 거제고현점에서
본죽을 수령하여 거제시 곳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센터는 거제시 거제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거제시에서도 외곽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본죽을 나누었습니다. 치아가 없으신데 틀니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하시는 어르신, 이웃과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항상 외로워하시는 어르신, 작은 체구로 이른 겨울 새벽 눈뜨시자마자 굴 까러 가시는 어르신 등 본죽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을 재가지원팀에서 선정했습니다.

저작기능과 소화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죽은 항상 인기 만점입니다. 매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다 보니 방문 때마다 오늘은 어떤 죽이 올까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며 기다리신답니다.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전달합니다. 매주 찾아가는 본죽은 외롭고 찾아주는 이 없는 어르신에게는 최고의 손님입니다.

본죽을 전달하고 받는 큰 감사한 마음을 매번 우리 복지사들만 받는 것 같아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게 문을 열자마자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 주시는 본죽&비빔밥 거제고현점과 사회공헌팀에도 어르신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과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

<어르신 본죽 왔어요> 21년 협력 복지기관

- 가정복구재가노인돌봄센터
-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 예장통합교회
- 장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평화사회복지관
- 홍천군노인복지관
- 개금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광양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노인의전화재가노인돌봄센터
- 반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 인제군사회복지관
-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본죽 덕분에 살맛이 나네

**이홍식(가명)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 11시 30분 이면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작년에 살던 집 앞으로 도로가 놓이는 바람에 쫓기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동네 주민의 도움으로 동네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옮기신 거처에서는 불을 지피지 않아도 되어 생활은 조금 편해지셨고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식사가 걱정이었습니다. 혼자서 잘 챙겨 드시지 못하시고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 즉석 미역국에 밥 조금 말아 드시는 것이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본죽 홍천점에서 죽을 픽업해 방문을 드리면 벌써 환하게 웃으면서 느린 걸음이지만 꼭 문 앞까지 걸어 나오시곤 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영양죽을 이렇게 가져다주니 더 오래 살겠다'라고 하시며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나고 물어보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본죽을 들고 찾아빈지 5개월 정도 지나고부터는 이웃분들께서 알아보실 정도로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방문하면 누워만 계시고 이웃분들이 놀러 와도 누워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매주 찾아되며 본죽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사이 삶의 활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이홍식 어르신은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시며 본죽 덕분에 100세까지 살 수 있겠다며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곁에 있으니 힘내세요.”

- 홍천군노인복지관 -



본죽으로 다양한 나눔을 이어갑니다



혹서기 보양죽 나눔

300명

무더운 초복을 맞아 혹서기 보양죽을 나누었습니다. 본죽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대상으로 발행된 전복죽 할인쿠폰이 사용될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하여 후원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뜨거운 여름을 무사히 나실 수 있도록 기력회복을 위한 보양삼계죽 파우치와 반찬 5종을 키트로 구성했습니다. 키트는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배분에 힘써주셨습니다.

어버이날 영양죽 나눔

350명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주최 및 주관으로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본아이에프는 2016년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MOU체결 이후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민·관 기업, 단체들이 연대하여 더 큰 나눔을 만들어 갑니다.



**"마음 돌 곳 없어 잊어버리고 살던 어버이날인데,
복지관 선생님들하고 재밌는 행사도
하고 많은 분들이 준비해준 선물도 받고
정말 행복한 하루 보냈어요"**



동지팔죽 나눔

550명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몰리치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팔로 쓴 동지팔죽을 나누며 동지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해 온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본죽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할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동지팔죽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따뜻한 동지팔죽을 전달했습니다.



**"몸살감기로 입맛이 없고 기운도 없었는데
따뜻한 동지팔죽을 먹으니까 마음도 위로가 되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좋으네,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챙겨주다니 잘 먹고 더 힘내야겠어. 고마워!"**

본도시락, 생일은 특별하게!



모든 아이들의 생일은 특별하기에, 본도시락은 그룹홈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생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인 그룹홈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을 맞이한 막내부터 보호 종료를 앞둔 대학생까지 서로를 보듬으며 가족보다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생일을 맞은 아이들이 소소하지만 뜻깊은 추억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도시락이 함께 합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아이들이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년 생일파티 지원 도시락

757 개

생일파티 지원 누적 도시락(19년~21년)

1,548 개

그룹홈 아이들의 소중한 생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2019년부터 그룹홈 아이들의 정서지원,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생일파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생일자 아동이 그룹홈 식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생일상도시락, 파티용품, 선물을 지원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룹홈 아이들에게 '나만의 생일파티'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이 생일파티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21년 생일파티 진행 그룹홈

68 개소

생일파티 진행 누적 그룹홈(19년~21년)

119 개소





박세희, 양혜지 간사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느껴집니다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보호자로부터 학대와 방임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생일 축하를 받아보지 못해 생일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거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는 생일파티의 경험만으로도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아동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룹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동은 물론 그룹홈 종사자 선생님들도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아동의 95%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더 사랑하는 존중감이 생겼다” 등의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후기가 있었지만 한 친구의 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생일파티를 통해 행운이 찾아왔다고 표현해 주었는데요. 건축가의 꿈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나씩 쌓아올려 나중에 누군가에게 행복한 생일파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친구의 예쁜 마음을 보며 생일파티 지원이 그룹홈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주리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박세희, 양혜지 간사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Special Thanks to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생일파티에 함께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룬벌트 김지수 대표님과 김재민 작곡가인데요.
두 분의 따뜻함 덕분에 아이들의 생일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지수 대표는 일러스트 작가이자 패턴 디자인 스튜디오 라룬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에게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후원하던 중 생일파티 지원 사업에 대해 전해 듣고 생일파티 삽화에 재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감사한 재능기부 덕분에 귀여운 파티 용품과 아이들의 초상권을 지켜줄 수 있는 캐릭터가 탄생하였습니다.

김지수 대표 | 라룬벌트



김재민 작곡가는 보육원과 그룹홈에서 성장하며 작사, 작곡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곁에서 함께 응원해 준 그룹홈 식구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사, 작곡가가 된 지금은 좋은 음악으로 그룹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생일파티 주제곡인 'Only you'라는 노래를 작곡해 주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며 썼다는 따뜻하고 솔직한 가사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김재민 작사/작곡가



아이들은 생일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하람이의 생일파티

다른 친구가 먼저 생일파티에 선정되자 부러운 눈빛으로 생일만을 기다렸던 하람이의 생일입니다. 늘 말없이 빙그레 웃음 짓는 하람이지만 생일날만큼은 가장 활짝 웃는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찬이의 생일파티

또래보다 발달이 다소 느린 우찬이는 9살이 된 올해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룹홈 선생님과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 우찬이는 "내일 또 생일 해요!"라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망이의 생일파티

올해로 5살이 된 사랑스러운 희망이는 그룹홈 입소 초기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생일에도 "우와~내가 좋아하는 거네!"를 외치며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 후기 속 아이들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방임으로 그룹홈에 오게 된 주현이가 출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걱정한 그룹홈 선생님들이 파티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번 생일을 보내며 "내 생일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감사했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현이의 생일파티



수연이의 생일파티

돌아갈 원가정이 없는 수연이는 그룹홈 친구들과 따뜻하고 소중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수연이를 위해 전날부터 파티를 준비하고, 아침에는 생일상을 차린다면 막내까지 주방을 오갔대요. 수연이를 위해 모든 식구들이 총출동해 차린 생일상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21년 생일파티 지원 아동

104명

누적 생일파티 지원 아동(19년~21년)

213명

본도시락이 특별한 나눔을 이어갑니다

작은 관심으로 함께 찾아주세요

본도시락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고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도시락 슬리브를 통해 장기 실종아동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기 실종아동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간 100만 장에 이르는 슬리브를 배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실종아동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룹홈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본도시락 바삭 기부 캠페인

본도시락 x 네고왕

본도시락은 네고왕 프로모션과 함께하는 바-삭 기부 캠페인을 통해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된 장학금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통해 선발된 자립 예정 청년들의 주거지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말 결식 우려아동을 위한 주말도 든든하게

안녕하세요. 형견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푸드트럭, 반찬 배달,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도시락 배달 만족도가 높아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는데 조리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도시락에서 도시락을 지원해 주시니 너무 기뻐합니다. 할머니랑 사는 친구가 있는데 거의 굶거나 과자를 먹었더라고요. 주말 도시락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 도시락 배달을 계기로 주말 특식 후원을 해주시는 가게도 생겼고, 배달을 하고 싶다는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전용 식당인 밥 먹고 놀자를 운영하게 되어 기대되는 바가 큼니다. 아이들의 주말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민 대표 | 형견원숭이운동본부



항상 똑똑 두드린 뒤,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세요.

얼굴 보고 받는 건 부담스럽기도 한데 걸어두고

가시니 편하게 가져와요. 보통 주말에는 굶거나

라면을 먹곤 했어요. 보내주시는 도시락 덕분에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말이면 누군가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어

든든했어요!



우리동네 본설령탕 나눔 챌린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본설령탕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선물합니다.

우리 동네 가장 가까운 주변에 부실하게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은 없는지, 신체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은 없는지 살피고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나눕니다.



21년 본설령탕 나눔 챌린지

2,365 인분

본설령탕 나눔 누적(15년~21년)

14,335 인분



본설령탕이 전하는 속이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한 나눔

본설령탕은 2015년부터 매년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과 조손가정 등 지역사회에 든든한 본설령탕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는 가맹점과 지역사회와 함께 손잡고 우리동네 나눔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개 본설령탕 가맹점과 함께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시하며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선물합니다.

21년 함께한 가맹점

10

개

21년 함께한 복지기관

10

개

이렇게 운영됩니다.

- 본사** : 나눔 가맹점을 모집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연계합니다.
- 가맹점** : 본사와 함께 본설령탕을 기부합니다.
- 지역사회** :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본설령탕을 전달합니다.



나눔 챌린지 누적
2,365 인분

우리 가게가 있는 우리 동네에서 따뜻함을 나뉘요



본설령탕 우장산역점 사장님

저의 작은 마음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보람되고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잘 이겨내어 다른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누며 살 수 있는 마음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 챌린지에 함께해 주신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초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안산 와동 김0심 어르신은 건강 악화로 1년 남짓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최근 집으로 돌아 오셨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방문할 때마다 누룽지에 배추 물김치 하나 꺼내 놓고 식사하시던 어르신께 본설령탕을 드렸어요. "세상 좋아졌네, 이리 진하고 맛난 설령탕을 쉽게 먹다니, 양도 많아선 며칠을 실컷 먹겠네." 오랜만에 든든한 한 끼에 활짝 웃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과 독거 어르신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런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한데요. 이번 설령탕 지원은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음식으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답니다! 본설령탕 루원시티점의 후원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에게 건강한 식사시간을 선물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본설령탕 순천신대점 사장님

코로나 전에는 매달 쌀기부를 하곤 했는데, 코로나로 힘들어지니까 기부는 꿈도 못 꿴었어요. 본사에서 함께하는 나눔 챌린지가 있다가에 용기 내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게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소망해 봅니다. 나눔 챌린지에 함께 해주신 본사와 우리동네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동네 본설령탕 나눔 챌린지> 21년 협력 복지기관

- | | |
|---------------|-------------|
| 초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 사단법인 파주천사 |
|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 관교노인종합복지관 |
| 전라북도노인복지관 | 철산종합사회복지관 |
|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 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설렁탕 뜨끈하게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네

내가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복지관에 가서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는 게 낙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안 아프던데도 더 아픈 것 같고 만날 답답했는데 이따 저녁에 설렁탕 뜨끈하게 해서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 고마워요. 선생님!

전라북도노인복지관 | 김상이(가명) 어르신



내가 지난번에 뇌출혈 이후로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움직이기가 많이 힘들어졌어. 그래서 식사 준비가 늘 부담이었는데 본설렁탕 덕분에 한 동안 걱정 없이 잘 먹었어. 허허허~ 설렁탕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던데 고맙다고 꼭 전해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 석태일(가명) 어르신

내가 평소에 찌개 같은 걸 요리하려고 해도 제맛이 안 나서 그냥 대충 젓갈 같은 것만 놓고 먹었는데 이렇게 국물 주니까 밥도 말아먹고 든든해서 좋았어~ 요 며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설렁탕 뜨끈하게 먹으니까 기운이 나더라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 | 윤성석(가명) 어르신

행복남남~ 베이비본죽!

베이비본죽의 모든 이유식은 재료 손질부터 완성까지
정성 가득 담은 프리미엄 이유식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이유식만을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유식을 만듭니다.

베이비본죽은 환경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모와 아기들에게 다양한 영유아 식품을 지원하며
모든 부모와 아기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21년 행복남남키트 나눔(제품 수량)

4,350 개

베이비본죽 영유아 식품 나눔 누적(15년~21년)

35,239 개





베이비본족으로 희망찬 행복을 전합니다

21년 행복남남키트 나눔

350 세트



착한맘 세트 기부 캠페인 장애부모 가정을 위한 나눔

베이비본족 홈페이지에서 5월과 6월 진행된 '착한맘 세트 기부 캠페인'이 성료 되었습니다. 판매된 착한맘 세트와 응원 댓글을 함께 매칭하여 행복남남키트 200개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부모와 아기가 차별 없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행복남남키트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장애부모 가정에 선물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간편하게 조리하여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

간편한그릇 식단 론칭 기념 매칭 기부 입양대기 아동을 위한 나눔

지난 11월 간편한그릇 식단 론칭을 기념해 한 그릇의 행복 매칭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친부모와 헤어진 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가족을 기다리는 입양대기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응원하는 마음을 베이비본족 고객들과 함께 모았습니다. 행복남남키트는 영유아 식품 8종 17개 제품과 더불어 임직원 봉사로 마련한 따스한 뜨개 목도리도 넣었습니다. 키트는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입양대기 아동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매 끼니와 간식에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입양 가기 전 더욱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이 위탁가정 엄마들의 마음이죠. 베이비본족 행복남남키트는 다양한 반찬과 간식이 있어서 좋았어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 입양대기아동 위탁가정 나지숙(가명)님 -





나눔은 언택트,
마음은 온택트

코로나19는 나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대접했던 나눔이 어려워졌지만,
언택트 나눔으로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본드림 키트부터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 소방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도시락 지원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본드림 키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어르신,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파우치족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조림까지,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키트를 제작해 연간 1,495개를 전달하였습니다.
본브랜드의 정성이 담긴 본드림키트가 식탁 위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21년 본드림 키트 지원횟수

12회

21년 본드림 키트 나눔개수

1,495개

언택트 응원 배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가는 의료진, 소방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진심을 담은 응원을 배달했습니다. 실 틈 없이 달려오느라 지친 우리 주변의 영웅들을 응원합니다.



사회복지사 응원배달

코로나가 지속되어도 나눔과 돌봄은 멈출 수 없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응원 도시락을 배달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지역의 5개 지역, 20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응원과 함께 도시락을 전달하였습니다.



소방관 응원배달

코로나 이후 늘어난 업무에 지쳐있는 소방관을 위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응원 도시락을 배달하였습니다. 가족, 동료, 지인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전달된 도시락이 응원과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선별검사소 응원배달

말복을 맞아 폭염과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심 없이 달려오고 있는 의료종사자들을 위해 영등포구 내 3개 선별검사소에 162개의 보양 도시락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서남병원 응원배달

한가위에도 방역과 진료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본설령탕 선물세트 200개를 배달하였습니다.



서울동부병원 응원배달

20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의료진, 종사자들을 위한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실 틈 없이 달려오느라 식사를 거르는 의료진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도시락과 파우치 죽 등을 배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용기 배달



본죽&비빔밥 길음역점

본죽과 요기요, 락앤락이 모여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용기배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진행된 이번 나눔은 각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더욱 풍성한 나눔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기아대책을 통해 선정된 서울지역 15개 지역아동센터, 500명의 아이들에게 15개 가맹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죽과 반찬을 락앤락 보온 용기와 반찬통에 담아 요기요를 통해 안전하게 배달하였습니다.



본죽, 본죽&비빔밥 사장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영양가 높은 죽과 반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안전된 음식은 락앤락에서 후원한 보온죽통과 반찬용기에 담았어요



요기요를 통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용기가 배달 되었어요



후원 아동 수

500명

총 후원 규모

3,900만원 상당

세상의 온기와 희망 본사랑

본사랑은 본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들의 변화와 행복을 돕기 위해
섬김, 나눔, 세움의 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2,400여 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세계아동꿈드림 사업

본사랑은 부모 없이 고통 중에 있거나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아동들을 위해 1:1 결연 사업을 진행합니다. 스리랑카, 인도 등 8개국 9개 도시의 2,400여 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통해 굶지 않고, 배우며, 치료받고, 꿈을 꾁니다.

21년 세계아동꿈드림지원

8개 국가 **2,402**명



러브엔본죽(분말죽) 지원

쌀, 콩, 옥수수 등의 곡식 가루에 비타민, 무기질 등의 첨가해 분말 형태의 죽을 개발하였습니다. 21년부터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의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해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년 러브엔본죽 지원

3.7톤

국내 곳곳의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나눔으로 섬깁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식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바자회 나눔 결과

후원 참여 파트너사

후원 결과(현물, 현금)

후원 물품 배분 기관

63개

175백만원

18개



결식아동 식사권 지원

437명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식사권(본아이에프 상품권)을 지원하여 본죽, 본도시락, 본설령탕의 다양한 먹거리로 인스턴트 위주의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나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신청을 통해 정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회 사랑의 김장나눔

10톤

매년 김장철이 다가오면 본사랑, 본그림 임직원, 가맹점 사장님이 함께 손수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김장나눔이 벌써 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완제품의 김치를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조이엔본죽(파우치죽) 지원

4.5톤

총 8종으로 구성된 레토르트 형태의 조이엔본죽은 조리가 어려운 분들도 맛있게 간편하게 영양이 높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20년부터 조이엔본죽을 활용해 국내외 식사가 어려운 결식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주인!

본그룹의 임직원, 가맹점 사장님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 곳곳은 물론 취약계층의 행복을 돕습니다.

본죽인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봉사나눔을 통해 행복의 동심원을 넓혀갑니다.

보이는 마스크

사랑족릴레이 캠페인

제8회 봉사량 본사모 현아음 행복나눔이 캠페인

2021년 본그룹 임직원 197명
봉사량 달성률 74.23만보 달성

지구사랑 숲가나눔 캠페인
모목 481그루 기부

21년 봉사활동 시간

15,613

시간

본족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그룹은 본아이에프, 본푸드서비스, 순수본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행복의 동심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월 진행하던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비대면 봉사로 나눔을 지속하였습니다. 본그룹의 나눔이 계속될 수 있는 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동화책 목소리 기부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60명의 본족인이 20권의 도서를 녹음하였습니다. 완성된 음원과 도서 시리즈는 세대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커피찌꺼기 비누 만들기

그린히어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마지오 본그룹 본사점에서 발생한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본족인들이 직접 주방비누를 제작하였습니다. 완성된 비누는 지구의 날을 맞아 고객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었습니다.



창립기념 걸음기부 & 도토리 키우기

창립 19주년을 맞아 두 달간 각자의 자리에서 걷기와 도토리 키우기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걸음기부 캠페인은 총 216명의 본족인이 참여해 7,423만 보를 달성하였고, 108명의 본족인이 도토리 씨앗 키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입양대기 아동을 위한 뜨개질

57명의 본족인이 참여해 180개의 귀여운 아기목도리를 완성하였습니다. 만들어진 목도리는 입양대기 아동에게 전달되는 베이비본족 행복남양키트와 함께 아기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1년 진행 봉사활동

10 회

21년 누적 참여인원

587 명



배리어프리 자막입력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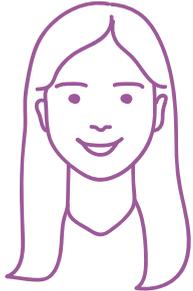
20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자막입력 봉사활동은 33명의 본족인이 참여해 총 3편의 배리어프리 자막을 제작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난청인을 위해 모든 소리의 정보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통해 문화향유에 장벽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본으로 행복을 돕는 사이

본그룹의 미션은 '본으로 행복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 동안 봉사 활동, 기부 등 다양한 나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정으로 '본으로 행복을 도운 본족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봉사참여왕

본아이에프 오픈바이징2팀
이미현 대리



사내에서 진행된 봉사활동들이 참신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플로깅 봉사와 동화책 녹음 봉사활동인데요. 두 활동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참여했던 나무 심기, 플로깅 등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남편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봉사왕이라니.. 작년에 이렇게 뜻깊은 활동에 많이 참여했다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합니다! (웃음)

걸음기부왕

본푸드서비스 회계팀
오홍록 차장



걸음 기부 캠페인에서 계속해서 많은 걸음을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30분 정도 걷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일찍 일어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캠페인 기간 동안 일상 속에서 기부를 위해 일부러 걷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부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이 걸음들을 기부로 다시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작은 걸음들이 모여 기부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쌀기부왕

본아이에프 본도시락 운영1팀
임영호 팀장



작년 이준 와이프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 하면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와이프와 기부를 결심하였는데요. 때마침 본사에서 쌀 기부를 진행하고 있어 바로 20포대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의 양이 중요하지는 않고,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부를 하고도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뿌듯함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쌀 기부를 진행한 날, 팀원 중 한 명이 "팀장님, 기부 수량을 잘못 입력하신 것 같아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문자를 주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길래... (웃음) 그러면서도 나를 생각해 주는 동료가 있구나 하고 서운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은 따뜻하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가치관 수상

본아이에프 전략기획팀
이재구 과장



개인적으로 사람이 노력해야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습관, 좋은 것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가치관상 수상 조건인 감사일기와 봉사활동, 기부가 제 자신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도 좋은 영향을 전해줄 수 있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주변, 사회에 작지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가치관상 수상자로 2016년도에 방문했던 방글라데시 감사나눔 여행이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느낀 점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큼니다. 선한 가치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력과 인성을 갖추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겸손하기 보다 완고하고, 경청하기보다는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선한가치관상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 정진해서 겸손하고, 자신감 있게 일 잘하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나무를 심었어요

일마지오 본그룹 본사에서 2번의 친환경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고객과 임직원들은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마지오는 생분해 빨대와 종이 뚜껑을 제공하며 그린히어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했는데요. 매칭 기부를 통해 기부된 묘목은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노을공원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족인과 일마지오 본그룹 본사점은 다양한 실천과 캠페인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캠페인 기간 텀블러 이용

751 회

캠페인을 통해 심은 나무

681 그루

한마음으로 쌀을 모아 행복을 전합니다



아동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소아암 환아 센터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한마음 행복나눔미 캠페인은 임직원과 가맹점 사장님이 직접 쌀을 구매해 캠페인에 동참하면 나눔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20년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62명의 임직원과 311개의 가맹점 사장님이 모아주신 595포대의 쌀은 본사랑과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대구 서구, 화성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소아암 환아 센터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21년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모인 626포대의 쌀도 본사랑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21년 전달한 쌀

11,900 kg

누적 전달한 쌀(13년~21년)

98,820 kg

※ 쌀 나눔에 참여한 가맹점에는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사모 릴레이 나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장님들이 모여 나눔을 이어갑니다

'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본사모는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을 모토로 2012년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가맹점 의견을 모아 본사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본사모는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사랑죽 릴레이' 캠페인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 식사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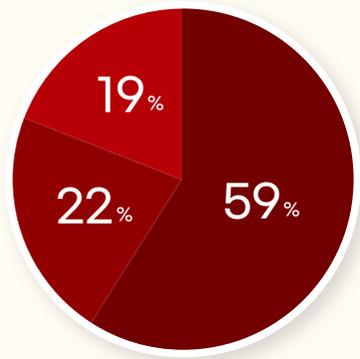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은 어려웠으나 직접 복지관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고, 상품권을 나누는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사장님들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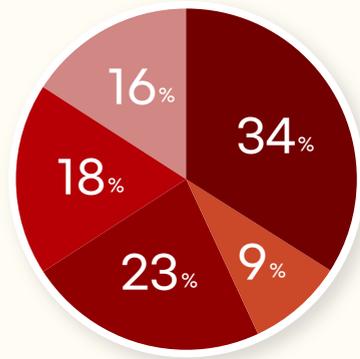
21년 사회공헌 하이라이트

21년 사회공헌 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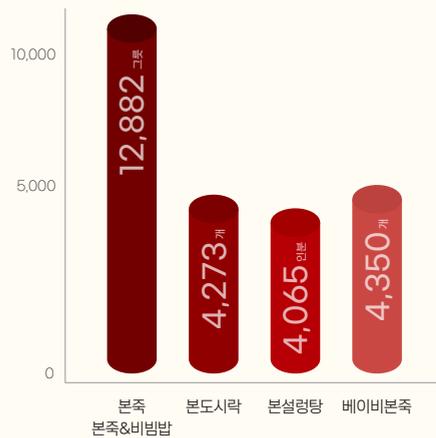
- 결식지원
- 지역사회
- 참여나눔

21년 사회공헌 사업대상



- 어르신
-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취약계층
- 기타(코로나19 관련)
- 영유아

21년 브랜드 사회공헌 나눔



21년 임직원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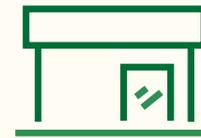
누적
15,613 시간

21년 사회공헌 참여 누적



임직원

587 명



가맹점

501 개

21년 사회공헌 인증 및 표창



지역사회 내에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지역사회공헌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20년부터 영등포구와 지역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결식예방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지속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영등포구 의회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21년 사회공헌 연혁



꼬르륵, 마음 고플 댕?

올 한 해도 많은 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분들께 정성으로 차린 식사가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는 사이

발행일 2022년 3월 14일

발행인 이성진

발행처 본그룹 브랜드가치관리실

기획 장아리, 홍은아

디자인 한송이, 하주연

<밥 먹는 사이> 책자에 대한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발행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bonlove@bongroup.co.kr



EAT TOGETHER FOR GOOD